

한 사람 (출애굽기 2:1-10)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전과 같이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운동도 해야 할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제 마음에 서서히 준비를 하고 다시 움직일 시간표를 기다려야 하겠다.

그러던 중에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 바란다. 예배는 하나의 방법, 틀이다. 알맹이는 언약이다. 기도도 하나의 틀이다. 그 알맹이는 언약이다. 내용이 언약이다, 컨텐츠가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언약이 없으면 그 기도가 어디로 막 날아간다. 결론적으로 좋게 표현하면 종교기도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단 기도이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이다. 예배를 하루에 스무번 드린다고 하면 대단하다. 하루에 스무번씩이나 드리면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귀신을 부르는 것이다. 알맹이는 언약이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기도해도 응답해주시고 대충 예배드려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만일 언약을 확실히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대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바란다. 언약을 딱 잡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잡는 것이다. 반드시 뱀의 머리는 부수지는 것이고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할수 있는가? 실제로 일어나야지 말만 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는 다른 것 필요 없고, 갑절의 영감,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그것 하나만 끝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이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죽을때까지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답이다. 주신 그 답이 내 인생의 실제 답이 되는 비밀이 바로 고백을 하는 것이다. 잡으라고 하는데 잘 안 잡힌다. 이것이 글을 쓰고 잡으면 되는 것이라면 쉬운데 이게 영적인 것이라 마음대로 안된다. 누리라는데 내 맘대로 누리지는가? 안된다. 고백은 내가 할수 있다. 그래서 고백을 계속 하라는 것이다. 고백을 계속 하면 아무리 바보라도 누리지게 되어 있다.

오늘 이 제목이 한 사람인데 이 한사람이다. 그러면 모세 어머니와 같은 그 인생을 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다. 오늘 해야 할 말 다 했다. 이제 가도 된다. 결론 냈다.

세상에 근본문제가 일어났다. 가만히 혼자서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도무지 우리가 안되는 것이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걸 답으로 생각 안하는 것이 문제지 답이 문제가 아니다. 답은 완전하다. 이 답을 누리면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때 일어나는 역사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 왕도 못 막는다. 바로왕은 세상에서 큰 사람이어도 못 막는다. 당연히 이런 응답은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237, 어느 나라든지 이런 응답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출발이 무엇인가? 답을 잡았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답이라 한 것을 답으로 잡았느냐는 것이다. 안 누리지면 고백은 할 수 있다. 매일 하라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 다 던져버리고 이것만 해도 된다. 때가 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렘넌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일의 증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다른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알았다면 좋았을걸 40살이 넘어서 겨우 들어왔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한다. 제목은 하나뿐이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답으로 잡고 고백하고 누리고 이것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 하나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답, 십자가와 보혈,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답으로 잡는 것이다. 이 언약을 잡고 예배 하면 흑암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인생의 문이 열리고 응답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약속했다. 이것을 지속하고 있으면 가정과 산업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셨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답이 되어 버린다. 이것을 발판이라고 한다. 미래에 대한 발판이다. 이 답을 언약으로 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미래에 대한 발판이라는 것이다. 응답해준 것을 생각해 보면 딱 발판이 된다. 오늘 이 문제에도 응답받으면 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발판 되는 것이다.

얼마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다. 한 스님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권사고 집안 이 다 기독교였다. 그런데 자기 혼자 스님 30년 했다는 것이다. 부인은 집사이다. 그런데 직접 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거부감은 없었다. 그래도 종교니까 나는 이 종교고 너는 그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는 일부러 교회 데려달라고 하면 데려다

주고 밖에 있다가 끝나면 집에 데리고 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한번은 성탄절인데 한번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못 갈것이 뭐가 있는가 해서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루는 부흥회 한다고 들어가자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가보자 하고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어디 아픈곳 있으면 손대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스님이 전직 깡패였고 주먹 좀 휘두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몸에 상처가 있고 허리를 다쳐서 고질병처럼 있었다. 그런데 일어서려면 한참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되겠다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딱 쳐다봤다고 한다. 그래서 손잡고 한번 기도했다. 하나님 계시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 다음날 되어서도 나으지 몰랐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아픈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인생을 바꿨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절도 처분하고 기도원 지으려고 한다고 한다. 증거 중요하다. 증거 없으면 힘이 없다. 증거 없으면 증인 못 된다. 사역자도 증거 없으면 선생님 밖에 못 된다. 선생님 말은 힘 없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이다. 은혜받는 증거도 증거지만 그것으로는 약간 모자라다. 증거주시라고 기도하기 바란다. 하나님 증인 될테니까 증거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언약이 언약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다. 그리고 이 언약 하나로 이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는 결심 있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오늘 이 불신앙과 오해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 언약이면 된다는 답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을 잡고 늘 누리면 되는 것이다. 안 누리지면 고백하면 된다.

1.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관한 이야기이다. 언약한 여자였는데 모세와 같은 시대적인 영원한 인물을 낳았다. 아이를 낳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시대적인 인물을 낳은 것은 축복이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도 되었다. 내 아들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야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주 영웅같은 인물이다. 모세를 낳았고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다. 영웅이다. 세상은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게벳같은 영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믿음과 결단의 대단한 여성이다. 당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싹 죽이는 시대였다. 그래서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석달은 어떻게 잘 숨겼지만 아기가 크면서 울음소리가 크고 그러니 숨길수가 없었다. 이 때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생각해보면 요게벳은 모세를 살릴수 있는 길은 바로왕 뿐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왕궁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다는 답이 난 것 같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 물 안들어오게 막고 갈대 상자를 떠내려 가면 안되니까 강가의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를 저 멀리 세워놨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고 세워놨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상상해보면 바로의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온다는 것을 모세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쯤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일 오는데 오늘 갖다 놓으면 울다가 죽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소에도 가서 사전답사를 다 했을 것이다. 다 봐놓고 시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 공주에게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가 뛰어가서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한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게 필요하다. 하니가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니 모세 어머니를 데려오고 내가 샴을 줄테니 젖을 먹이라고 했다. 전부 요게벳의 각본대로 다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지만 그러나 요게벳의 믿음과 결단, 생각을 거기에 맞춘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보통 여자같으면 이리다 아이를 하루도 빨리 죽이는게 아닌가 생각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살릴수 있을거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괜히 공주에 데려가서 더 빨리 죽는건 아닌가 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게벳은 거기서 믿음과 결단 했다. 응답일 것이다.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게벳은 모세의 인생과 사역에 근본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 모세의 인생에 근본되는 언약을 심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요게벳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내 아들이니까 한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모세가 요게벳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종을 낳고 키우고 언약을 심은 장본인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굉장한 축복이다.

그런데 중요한거 하나 잡아야 할 것이다. 요게벳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만일 요게벳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모세를 요게벳에게서 태어나지 않게 했을 것이다. 모세는 젖도 떼기 전 어린 나이에 요게벳으로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창세기 스토리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스토리를 알 뿐만 아니라 포인트, 즉 언약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이 요게벳에게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모세는 그때 말고 창세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였다. 왕궁에서 누가 창세기 이야기를 해주는가? 그리고 밖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궁안에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가? 잘못하면 들통나는데? 그래서 모세에 대한 요게벳의 사역은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언약 사역이 되었다. 그렇다면 요게벳은 창세기 3:15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하는 옛날 이야기에요 포인트가 있다. 어떻게 해서 짐승도 다 죽는데 노아와 그 가족이 다 살았는지 이것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싹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모세가 창세기를 쓰게 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요게벳에게 보낸 것이다. 사도행전 9:10절에 보면 이런 부분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와 불려서 사울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말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시켰다. 왜 그랬을까? 아나니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정확하고 포인트를 알고 있었기에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냈다. 그 당시 복음 아는 사람이 아나니아 한 사람뿐이었다?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에 우리도 요게벳과 같은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답이라고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받고 있고 고백하고 있으면 계속 마음에 심어진다. 심어야 한다. 그러면 증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이다. 원죄 이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야 한다. 그 시간이 경시 기도시간이다.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답을 가진 사람이 된다. 수만가지 문제를 한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내 마음에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내것이 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도 정확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충분해야 한다. 사단을 꺾고 어떤 문제도 뛰어 넘을 수 있는 답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가능했나? 믿는가? 수만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개로 끝이다. 이것이 믿어지느냐는 것이다. 이걸 안 믿으면 어찌 되는가? 문제에 놀라서 평생을 살게 된다. 그 문제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돈 문제에 잡혀서 누가 돈을 억만금을 주면 돈문제 해결이 된다. 문제는 그렇게 해결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돈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그리 해결 사람이 없다. 지나가다가 아주 좋은 집을 봤는데 그것 나 줘면 좋겠다 생각하면 가서 주인에게 물어봐라. 줄건가? 절대 안 준다. 그리고 돈 문제 해결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식 문제 생기면 남의 자식을 데리고 오는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확인해야 한다. 질문하면 답 주신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은 안 주신다. 되지 않을 일을 왜 약속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을 주셨다. 길을 바로 알고 그 길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잘 안잡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날 잡힌다. 어느날 더 확실히 자꾸만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누림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누림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고 이 영접 작업이 답이다.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답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방법적인 답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요게벳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 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 외에는 의미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승리하는 주간 되기 바란다. 한번 이번 주간에는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면 됩니까? 질문하고 확인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하실 것이다. 결국 답이면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역사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잡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2. 미션과 도전과 결단

모세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선 아무도 이 아이를 살려줄 사람이 없었다. 바로를 이길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요게벳은 어떤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선택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공주를 이 아이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안하고 머뭇거리면 죽는게 뻔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야 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어서도 굉장한 선택이었다.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것이다. 갈등 많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기도 했을 것이다. 질문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지혜였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기로 하고 누나를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두었다. 자기는 아마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중이 된 것이다. 아마 할렐루야 많이 했을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모세를 살려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요게벳의 계획이었다.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그런데 모세의 생명이 건졌는데,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만일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면 이 건 사단에게 보내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거기는 도무지 복음이 없는 곳이다. 일단 아이를 살려야 되기에 왕궁으로 보냈지만 왕궁으로 처음부터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혜로 아이를 일단 살렸으니가 나머지 숙제를 해야 했다. 아이가 젖을 떼고 왕궁으로 보낼때까지 언약을 확실히 심어서 보내야 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고 아이는 아직 어렸다. 그러나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잡혀서 영원히 저주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 간난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입장으로 보면 아주 절박했을 것이다. 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울기도 많이 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어리지만 언약이 깊이 들어가 평생 언약으로 승리하게 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나? 이 어쩔수 없는 요게벳의 미션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요게벳 자신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를 살릴려니 어쩔수 없이 왕궁에 보내야 되고, 거기 가면 완전히 사단에 잡히게 되니 짧은 시간에 언약을 심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든지 시간이 없던지 상관 없이 심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막다른 골목의 상황이 모세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요게벳은 이 막다른 골목의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는 그 길을 갔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길이었다. 우리도 바른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는다. 누구든지 개개인이 자기 상황 속에서 다 이 요게벳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다. 주어진 상황 원망하지 말아라. 너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선택할 길이 하나 뿐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되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는가? 나는 정말 언약의 사람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다.

간혹 보면 자식을 두고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 대부분 잘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런 부모님들 힘 내기 바란다. 요게벳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요게벳을 찾고 있다. 어쩔수 없는 미션 속에서 요게벳은 결단하고 도전했다. 어디를 향하여 도전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 수단으로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다. 이 도전이 있었고 믿음이 있으니까 왕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지 않게 없었던 왕궁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가? 거기는 이 명령을 내린 호랑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되겠는가? 그러나 요게벳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나, 왕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 도전을 한 것이다. '우리 아이가 이래도 상관 없다' 어느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전되어서 시대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다. 도전해라. 하나님을 향해 이 아이를 역전시켜 주세요.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문제의 증인으로 마음껏 쓰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게벳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직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내가 시대적인 인생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분명히 역사 일어난다. 이때 작품 인생 나타난다. 이 사람보고 그 시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인생 살고 누리는 축복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이런 요게벳같은 작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성경도 반복해서 말하지만 간단하다. 작품 인생, 시대적인 인생 되는 조건은 간단하다라는 것이다.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특별히, 렘넌트, 청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게벳처럼 언약을 전달할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으면 된다. 이럴려면 우리가 언약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이 하나님 내게 답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증인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다. 흑암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이것이 글자에 불과한가? 진짜로 한번 해야 한다. 세월만 보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게 어려울 것 없다는 것이다. 한가지만 지속하면 된다. 언약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고백을 만일 지속하면 아무리 바보라도 누리지게 되어 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고 이 고백을 한번 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번 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안되는 것 같다가도 되고, 또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도 안되고 다양하다. 그래도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 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사단이 무너지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그리고 약속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응답이 나타난다. 이런 작품 인생 되기를 바란다. 이 시대의 요게벳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와 상관 없이 넘어가 버린, 완전 증인, 오직 증인,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이 있어서 반경도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주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한 사람, 요게벳 같은, 하나님 축복받는 시대적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란다.